상업화 비판 '스님 대여'… 이유있는 인기

일본 불교계 '마이테라' 서비스 화제

일본의 '스님 대여 서비스'가 일본불교계를 변화시키고 있다. '스님 대여 서비스'는 가정서 제사를 지낼 때 등 필요에 따라 신도들이 스님을 대여하는 것으로, 시행 초창기엔 종교의 상업화란 거센 비난이 일었다. 그러나 최근엔 '신 개념 서비스'로 인기를 끌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불교계는 최근 '스님 대여 서비스'에 대응하는 '마이테라' 서비스를 도입, 본격 시행에 나섰다.

사단법인 '사찰의 미래'는 사찰을 선별하고 스님을 필요로 하는 일반인들에게 소개하는 '마이테라(まいてら, 영어의 my와 사찰의 일본어 발음 테라의 합성어)'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마이테라' 서비스는 '사람이 가장 소중하다'를 명제로 시민들과 사찰 간 인연을 맺어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시민들의 위치에 기반해 인근 사찰을 연결해 주고, 인품 등 엄격한 심사기준을 거친 스님을 소개해준다.

일본불교계가 이러한 시도를 하게 된 것은 일본만의 독특한 '단가(檀家) 제도'가 유명무실해져 사찰 운영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사찰과 미래'가 진행하는 '마이테라' 서비스 홈페이지. 스님 대여 서비스를 응용해 도시민과 사찰을 연계해주고 있다.

불교식 상례(喪禮)가 보편화된 일본에서는 가족의 사망 시 불자가 아니어도 스님을 모시고 장례식과 49재 등을 진행한다. 일본의 단가제도는 시민들이 조상의 위패나 묘지를 특정 사찰에 모시는 대신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한다. 사찰은 단가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례를 책임진다.

하지만 신자 수 감소와 고령화, 젊은 세대의 무관심 등으로 매년 단가가 줄고 있으며 기존 단가제도로 맺어진 유대관계도 약해졌다. 도시화로 인해 단가제도를 맺더라도 사찰 스님을 모시고 제식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속출했다. 하지만 사찰과 아무런 연결고리가 없는 시민들도 상을 치를 때는 스님을 필요로 하기에 스님 대여 서비스가 탄생한 것이었다.

고령·도시화로 사찰운영 차질로
인터넷 통한 대여 서비스 활발
종교 상업화 비판 받았지만
신 개념 서비스로 주목 받아
투명한 가격 공개 등 이유

이와 함께 그동안 불교계의 관행이 사회 문제화 되며 지탄받은 것도 한 원인이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한 스님은 돈이 모자라다며 의식비를 더 요구하다가 상중인 가족들과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여기에 교통비는 물론 식비까지 따로 청구하는 행위가 보도되기도 했다.

'마테이라' 도입의 시초가 된 '스님 대여 서비스'는 지난해 12월 8일 일본 최대 인터넷 유통회사인 '아마존 재팬'이 시작하며 본격화됐다. 종교의 상품화란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투명하게 서비스 가격을 공지하고 사찰과의 인연이 없더라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다. 현재 일본 언론에 의하면 '스님 대여 서비스'는 전년대비 매출이 7배로 늘어났으며 문의전화도 1만 2000여 건에 달한다.

결국 '스님 대여 서비스'라는 뜻밖의 사건으로 일본 불교계는 그동안 외면해 왔던 제식비용의 불미스러운 관행을 반성하고, 현대인들의 고충을 파악하지 못한 점을 깊이 성찰하는 계기로 삼고 있는 것이다. **주성원 객원기자**


단기출가 중인 태국 가수 따사팍 비에 치이가 딸을 안고 있다. **사진출처=coconuts bangkok**

딸 안은 태국 승려에 비난 '봇물'

단기출가 중인 가수 따사팍, "승려 계율 어겼다" 악플 세례

태국서 단기출가 중인 승려가 딸을 안고 찍은 사진에 대해 네티즌들이 설전을 벌이고 있다. 태국 불교계는 승려가 여성과 접촉하는 것을 계율을 범한 것으로 간주하는데, 단기출가 중이라도 이를 지켰어야 한단 비판이다.

태국 언론 'coconuts bangkok'은 9월 26일(현지시간) "단기출가 중인 태국 가수 따사팍 비에 치이가 딸을 안고 있는 사진을 공개해 악플 세례를 받았다"며 "네티즌은 아무리 단기출가라지만 여성과 접촉하면 안 된다고 비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건은 따사팍의 부인이자 배우인 수몬팁 굽깁 치이가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따사팍과 딸의 사진을 공개한 것이 발단이 됐다.

굽깁은 "내 승려에게 존경을 표하기 위해 (내 딸과) 왔다. 사람들이 누가 승려고 누가 딸인지 착각하지 않도록 가발도 착용했다"며 사진을 게시했다.

해당 사진을 본 네티즌들은 '승려가 여자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이 적절한가'를 두고 논쟁을 벌였다.

대부분의 네티즌들은 "모든 것엔 적당한 장소와 때가 있는 법인데, 따사팍과 굽깁의 행동은 부적절했다"는 여론에 동조하고 있다. 또한 "승계를 지키지 않는다면 따사팍이 단기출가 한 이유는 대체 무엇이냐"는 비판도 있다.

그러나 태국 승단은 이에 대해 '별 문제 없다'는 태도를 나타냈다. 현지서 신망 높은 승려로 평가받는 프라마하 파이완 스님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큰 문제가 아니다. 죄라기 보단 오히려 마음이 따뜻해지는 광경"이라며 "따사팍은 자신의 딸을 사랑으로 안아주고 있는 것 뿐, 겉으로 드러난 행동이 아닌 내면을 봐야한다"고 의견을 내세웠다.

이어 파이완 스님은 "불순한 의도를 품은 승려가 여성과 접촉하는 것은 죄지만, 이 부녀는 매우 순수하다"며 "무슨일이든 침소봉대(針小棒大)를 경계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박아름 기자**

美초등학교, 말썽피우는 학생에게 명상 체벌

'마인드풀 모멘트 룸' 가서 반성문 대신 명상 실시

장난기 가득한 얼굴을 한 소년이 눈을 감고 가부좌를 틀고 있다. 그는 지금 명상으로 '벌 받는 중'이다.

미국의 한 초등학교가 도입한 새로운 체벌이 세계 교육계에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인터넷 매체 '유(You.co.za)'에 따르면, 미국 볼티모어 로버트 W. 콜먼(Robert W. Coleman) 초등학교는 지난 해 초부터 새로운 체벌로 '명상'을 도입해 학생들을 명상실로 격리 조치하고 있다.

학교는 말썽을 피우는 학생들에게 "복도에 나가 서 있어!", "남아서 반성문 써!" 라는 말 대신 '마인드풀 모멘트 룸(Mindful Moment Room)', 즉 마음을 집중 하는 방에 가 있게 한다.

학생들은 은은한 조명과 보랏빛 베개들로 꾸며져 있는 마인드풀 모멘트 룸에서 심호흡을 하고 명상을 한다.


미국 볼티모어 로버트 W. 콜먼(Robert W. Coleman) 초등학교는 지난 해 초부터 새로운 체벌로 '명상'을 도입해 학생들을 명상실로 격리 조치하고 있다. **사진출처=You.co.za**

이런 체벌은 효과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에 근무하는 명상지도자 커크 필리스(Kirk Philis)는 "놀랍다. 꼬마들이 침묵 속에서 명상을 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다. 그들은 정말 명상을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방법이 특히 지난 크리스마스 때 효과를 발휘했다고 강조했다. 필리스는 "크리스마스 시즌에 선물을 나눠 주는 시간에 보통 아이들은 먼저 받기 위해 다투고 밀친다"며 "그런데 선물 주기 전 명상시간을 가졌더니 아이들이 마음을 가라앉히고 친구들에게 서로 양보하며 선물을 받았다. 정말 멋진 광경이었다. 우리는 아이들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고 회상했다.

아이에게 격리 대신 명상을 시키는 이 방법은 지역 비영리단체 홀리스틱 라이프 재단(Holistic Life Foundation)이 제안했다. 로버트 W. 콜먼 학교는 이 재단의 도움으로 학교에 명상실을 꾸몄다.

미국 현지 매체 '업워시'에 따르면 명상으로 아이들을 지도한 뒤 이 학교에는 정학 사례가 하나도 생기지 않았다.

근방에 있는 패터슨 파크(Patterson Park) 고등학교도 여기에 감명받아 명상 체벌을 도입했다. 역시 정학 사례가 감소했고 출석률이 올랐다고 한다.

하지만 체벌로 명상을 도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명상이 부정적 이미지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한 네티즌은 "벌 받아야 할 상황에 명상을 하게 하면 명상은 잘못했을 때 처벌로 하는 것이라거나 또는 문제 있는 아이들이나 하는 것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로 인식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보형 객원기자**

남호주서 최초 불교 매장의식 치러져

4월 3일 개관 엔필드 기념묘지 '불교공원'서

호주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South Australia)에 최초로 조성된 불교 묘지공원서 첫 매장의식이 치러졌다.

불교전문지 'Lion's Roar'은 10월 3일(현지시간) "불교 묘지공원은 최근 증가한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 지역 불자들의 수요에 따라 지난 4월 3일 엔필드 추모공원(Enfield Memorial Park) 서 문을 열었다"며 "지난주 개관 후 첫 불교 전통 매장의식이 열렸다"고 보도했다.

의식은 매우 엄숙하고 경건하게 진행됐다. 로버트 피트(Robert Pitt) 애들레이드 묘지국 회장은 "불자들이 함께 모여 고인을 추모할 수 있는 공간이 조성돼 기쁘다"며 "지역 불자들의 요청에 따라 불교식 매장의식이 열리게 돼 감회가 새롭다"고 말했다.


호주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에 최초로 조성된 불교 묘지공원서 첫 매장의식이 치러졌다. **사진출처=Lion's Roar**

한편 불교 묘지공원엔 120개 유골을 모실 수 있는 공간이 갖춰져 있다. 또한 공원 한 가운데엔 4m 높이의 불상을 비롯해 향로와 보리수나무 등이 배치됐다. 유족들은 불상을 중심으로 3바퀴를 돌며 고인을 추모한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GmSoft GM SOFT since 2015 천수천안
사찰신도관리프로그램
"이제 지엠소프트 천수천안 ROGRAM 으로 Smart한 사찰로 리드해 가십시오."

◆전국 어디서에나 실시간으로 사용가능
◆저렴한 비용과 사용의 편의성
◆사찰관리업무 간편화
◆연등, 인등, 축원문 등의 간편 출력 가능
◆문자서비스, 우편라벨 등의 부가서비스
파격가격 및 할인
최초 가입시 2개월 무료 사용
월사용료 : 기본 19,800원
세팅비 전액무료

사찰신도수	1~100명	101~200명	201~300명	301~400명	401~500명	500명 이상
추가사용료	0원	2,000원	4,000원	6,000원	8,000원	10,000원
합 계	19,800원	21,800원	23,800원	25,800원	27,800원	29,800원
할인 혜택	12개월 결제시 1개월 사용료 할인					

NAVER 지엠소프트, 사찰관리, 신도관리 등으로 검색
대표전화 070-7633-2525
상담문의 : 평일 09:30 ~ 17:30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휴무
홈페이지 http://www.gmst.co.kr

이젠 몸에 좋은 천연방향제가 대세!!
천연 한방방향제
동의보향 DONGUIBOHYANG 香
동의보향은 한방약재 중 향이 좋은 생약재를 엄선한 한약 방향제입니다. 그냥 놓아두는 것만으로도 숲속의 아침처럼 청정하고 상쾌한 향기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동의보향은 화학방향제와는 달리 자연에서 얻은 천연향으로 심신을 안정시켜 건강한 생활을 지켜주는 향기보약입니다.

주는 이의 마음처럼 향기로운 동의보향은 오래토록 기억되는 좋은 선물입니다.
선물용 대량 구매 시 추가로 덤 증정
•용도 : 자동차, 공부방, 침실, 장롱 등
•규격 : 12*19cm(복주머니), 100g
주문전화 : 010-5607-3313 (062)385-9954
입금계좌 : 농협 810-02-157670 (박해숙) 제조원 : 수풀림

빙의치유(영가장애) 상담 환영!!
빙의치유도 전문가를 만나야 문제해결이 가능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과 가족의 행복이 걸린 문제입니다!!
각종 빙의의 구체적 증상
• 사람이 갑자기 어느 시점부터 이상 행동하는 경우 (폭력적으로 변한 경우, 술을 갑자기 많이 먹는 경우, 술 먹으면 눈빛이 바뀌는 경우, 밥을 끊임없이 많이 먹는 경우 등)
• 잠잘적 마다 많은 꿈에 시달리는 경우, 잠잘적 마다 가위 눌리는 경우
• 숙면 취하지 못하고 불면증 심한 경우
• 어느 시점부터 사람이 의욕이 없고 우울해지고, 몸이 마르고, 몸이 천근 만근 무거우나 병원에선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경우
• 불안, 공포, 무서움증이 심한 경우
• 알 수 없는 머리 두통, 가슴통증, 배아픔 등이 있는 경우
• 환청, 환각 증세가 심한 경우
• 가정불화, 사고 우환이 계속되는 경우
• 중, 고등학생이 갑자기 이상 행동, 폭력적 행동, 학습능력저하, 자살충동 일으키는 경우
• 장례식장, 상가집, 국내외 여행 다녀온 후 몸과 마음에 이상 증세 있는 경우
• 여러번 천도재, 굿을 해도 효과 못 보신 경우
• 아무리 센 신기운도 제압, 천도가능 함.
• 신기운, 무병에 시달리는 경우
• 동물(소,돼지,개,닭,오리,어류 등). 식물(큰나무 베고 탈난 경우) 영가도 천도 가능함.
상담해법 문제해결 중심으로 상담 : 빙의치유 전문자격 갖춤
• 차후 지속 관리해 드림 (또 다른 기운이 들어올 수 있음)
• 원격치유 가능 (외국에 있는 분도 치유가능)
• 몸안에 들어온 영가제령, 최고실력 보유 (전국 최고)
상담문의처 제주 불교금강선원 (빙의치유영가천도전문상담원)
☎ 064)746-0789 ※ 전국 어디든 상담환영!
오시는길 : 제주시 삼무로 47, 3층 (연동) 삼무공원버스 정류장 하차하여 바로

부처님 마음 공부
무량 청정암 열린 마음선원에서 아래의 내용으로 부처님 마음공부를 함께하실 불자님들을 모십니다.
아 래
❶ 교육과정 및 일정

과 정	요일 및 시간	수 업 내 용	
기초과정	매주 화요일 (요일 변경 가능)	염불선	1단계 : 불교이해 2단계 : 경전독송 이해
중급과정	매주 수요일	참 선	참선이해, 법거량
고급과정	매주 금요일	간화선	화두참구, 깨달음

❷ 수업 신청 방법
– 기초과정 : 3개월 선착순 (20명 이내 한정)
– 법사와 1대 1 수업 운영
– 수 강 료 : 3개월 (30만원)
❸ 교육장소 : 무량 청정암
❹ 교 수 : 무량 청정암 최정훈 법사
❺ 문 의 : 010-2559-6886
무 량 청 정 암
부산시 부산진구 전포대로176번길 23